



그림41 제10군단 사령부 인근의 작은 냇가에서 빨래 중인 여인들(1951. 1. 8.)



그림42 12살 북한군과 20살 미군. 포로수용소에서 어린 인민군의 별명은 만화 캐릭터 벅스 바니를 닮아 ‘버니’였다(1951. 1. 14.)



그림43 제1포로수용소 여성 포로들의 모습(1951. 1. 16.)



그림44 세 명의 중공군 포로들(1951. 1. 28.)



그림45 수송기 C-119가 물자를 투하하고 있는 모습(1951. 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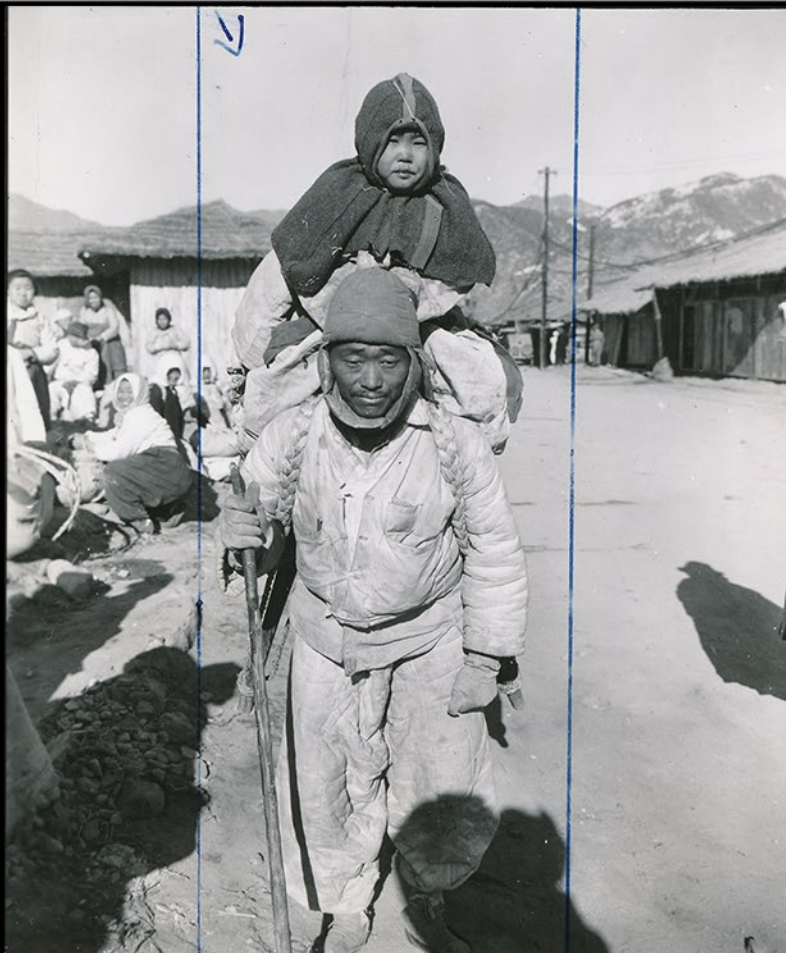


그림46 유일하게 남은 2살 반 된 아들을 업고 피난한 한 남성. 그의 집은 불에 탔고, 부인은 죽었으며, 그의 장남은 전쟁포로가 되었다(1951. 1. 20.)



그림47 부서진 수원성을 지나는 미 제25사단의 모습(1951. 1. 25.)



그림48 수원을 둘러보기 위해 지프차를 탄 유엔군 총사령관인 맥아더와 미군 장교들(1951. 1. 27.)



그림49 국군 제1사단 제15연대에 의해 붙잡힌 중공군 포로들의 모습(1951. 1. 30.)



그림50 미 제24사단 제19연대 군인이 생포한 중공군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색하는 모습(1951. 3. 7, 서울)



그림51 적으로부터 점령당했던 도시로 돌아오고 있는 피난민과 미 제1기갑사단 보병대(1951. 3. 13)



그림52 1951년 3월 16일 제2차 서울수복 시 국군과 미군이 순찰을 돌며 태극기를 점검하는 모습(1951. 3. 16)



그림53 중공군에 대항하여 공격을 개시하는 유엔군(1951. 3. 23, 의정부)



그림54 북한강을 도하하는 미군(1951. 4. 4, 북한강)



그림55 큰 그릇에 쌀을 가득 받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두 소녀(1951. 4. 15, 38선 근처 마을)



그림56 신병들이 이발을 받고 있다.(1951. 4. 18, 대구)



그림57 전방부대에 물품을 운반 역할의 지게부대의 모습(1951. 4. 18, 대구)



그림58 일부가 무너진 수원화성 사이로 지나가는 트럭(1951. 4. 20일, 수원)



그림59 가족의 부축을 받고 있는 여성(1951. 4. 23, 38선 부근)



그림60 천천히 서울로 가고 있는 두 다리를 잃은 피난민(1951. 4. 29)